

## 한국과 미국의 Emo Fashion Style에 관한 연구

박주희<sup>+</sup> · 하지수<sup>\*</sup>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sup>+</sup>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U.S. Emo Fashion

Judy Joohee Park<sup>+</sup> · Jisoo Ha<sup>\*</sup>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sup>+</sup>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sup>+</sup>

(2007. 11. 12 투고)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emo fashion, a very recent music-related fashion trend spreading fast amongst youths, and understand emo ideas and methods of expression for a greate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youth sub-cultures and fashion trends. Documentary research, positiv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throughout the study.

4 Korean emo bands and 4 U.S. emo bands were selected based on music chart rankings, and a total of 37 photographs from the bands' Internet websites were selected, and their clothes shown in the photographs were examined. 5 Korean emo band musicians were subjects of in-depth interviews, and they were asked about their emo culture, music, fashion, ideas and styles, and photographs were taken of the subjects and evaluated, too. Lastly, Korean and U.S. emo kids were studied through photographs, and comparatively analyzed.

Both Korean and U.S. emo musicians wore slim silhouettes, skinny jeans, t-shirts, sneakers, black, studded belts and plastic-framed glasses. Korean fashion expressed a less depressive atmosphere with color and other detail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did not prefer dark black eye make-up, which United States emo style appeared to express frequently. Korean musicians' emo fashion was closer to other youth fashions, whereas U.S. emo fashion included more formal styles such as ruffled shirts and pin-striped vests. Korean emo kids wore clothes not much different from most Korean youths, but U.S. emo kids wore a lot of eye make-up and black t-shirts with graphic or skull prints, and had more geometrical hair styles, as if cut at home. The reasons for such differences were found to be a longer emo music and culture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leading to more elaborate fashion expressions and a difference in the states of mind, such as Korea pursuing to express love, and the United States pursuing loneliness.

Key words: emo(이모), sub-culture(하위문화), youths(청소년)

## I. 서론

최근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미국, 유럽의 청소년 아이콘 'emo kid』(2007.02.19) 또는 『Who is an Emo?-Emo Boys』(2007.02.24)와 같은 제목의 블로그 글들이 눈에 띄게 게시되고 있다.

Emo는 핑크에 근원이 있는 현대적인 패션 또는 문화를 지칭하는 속어이자 공식적인 용어이며, 동시에 하나의 음악 장르, 패션 트렌드, 사람의 성격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Emo는 감정적, 즉 "emotional"한 정신을 줄여서 표현하는 단어로 emo의 감정은 솔직하고 민감하고 소극적이고 마음이 아프고 침울하고 조용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다.<sup>1)</sup> Emo가 서양에서는 이미 하나의 하위문화로 자리 잡았고 한국에까지 서서히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mo kids는 복식을 통해 emo 정신을 표현하여 현대의 독특한 하위문화 패션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 문화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emo 패션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emo 사상과 표현방법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현대 청소년 하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청소년 문화의 영향을 받은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펑크나 히피 등으로 제한되고 있어 현대에 새로 등장하는 청소년 스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독특하고 현대화된 emo 패션이 등장했으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며, 특히 이미 한국에서도 emo 음악이 존재하며 이들의 emo 패션이 서서히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emo 청소년 패션의 차이를 고찰하여 emo 문화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Emo 음악과 패션에 있어서 한국 emo kids는 유럽 emo 음악보다는 미국 emo 음악과 그들의 패션을 더 많이 차용하고 있으며 더 친숙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유럽을 제외한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emo 패션 비교 및 분석하여 각 나라의 emo 패션의 특징과 특수성을 고찰하

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와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Emo 음악을 연주하는 한국과 미국의 밴드들을 각 4 밴드씩 추출한 뒤, 선택된 밴드의 공식 홈페이지 사진 중 대표적으로 총 37개를 선정하여 사진 속 의복을 분석하였다. 이들 밴드에 관한 설명과 팬들의 인터넷 팬 사이트 상 의견 및 지적도 참고하여 이들의 문화를 해석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emo 패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 emo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을 5명을 대상으로 2007년 3월에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을 통해 이들의 emo 문화, 음악, 패션 등에 관한 사상과 스타일을 알아보고 추가로 사진 촬영을 통해 시각 분석 자료를 더하였다.

## II. Emo 문화 정의 및 배경

Emo 문화와 emo의 근원이 되는 펑크 문화의 공통점이 있다면 음악이 각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각 체험을 통해 채우는 욕망은 개인의 무의식에서 비롯하고 무의식은 이성을 대신할 수 있는 문화 창조력의 샘인데, 대중은 락 음악을 수용하는 도구로만 기능하지 않고 이 음악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다는 결론을 가진 연구가 있었다.<sup>2)</sup> 따라서 emo 패션을 고찰할 때 emo의 펑크적인 근원과 emo 음악의 영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 1. Emo의 정의와 특징

Emo는 고딕(gothic) 패션 및 하위문화와 펑크(punk) 패션 및 하위문화에 근원을 둔 패션 스타일과 하위문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이며,<sup>3)</sup> 지역과 사용방법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개 특정 사상, 음악, 패션 등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Emo 또는 emocore 음악은 일반적으로 "감정적인(emotional) 가사나 효과를 토대로 한 락(rock) 음악"<sup>4)</sup>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모인(人)(emo person)"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민감하고 내성적이고 가슴이 아프고 어둡고 조용한 사람

을 말한다.<sup>5)</sup> Emo의 핵심 가치들은 우울함,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 무엇이든 한 번 믿으면 깊게 믿는 것, 불안정함, 비활동성이다.<sup>6)</sup>

Emo 음악은 1980년대 말에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 하드코어 펑크(hardcore punk) 운동의 연장으로서 시작되었다. 하드코어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으로(emotional) emocore 혹은 emo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초기에 emo음악의 특징은<sup>7)</sup> 긴장감 있는 펑크 음악을 바탕으로 높은 톤의 매우 감정적인 요소를 더한 스타일이었다. 빠른 펑크 드럼 비트에 더해 기타 음색이 강하고 음성은 멜로디가 더욱 강하고, 가사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며, 매우 조용하고 매우 시끄러운 소리들을 오가며 곡의 절정 부분에서는 대부분 가수가 소리를 지르거나 동물 소리를 내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듯했다. Emo 음악은 시적이면서 강하고 매우 우울하면서 흥분하고 향수에 젖어 있기도 한다.<sup>8)</sup>

초기에 emo 음악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이젠 서서히 그 영향이 확장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emo 음악을 들으며 emo 패션을 즐겨 입는다.<sup>9)</sup> 1990년대부터 emo 음악이 주류 미디어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어서 emo 밴드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초기 emo 음악보다 훨씬 부드럽워져 펑크 뮤직과 유사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emo 밴드와 emo 음악이라는 명칭이 특징적으로 계속 사용되었다.<sup>10)</sup> 현대의 emo 음악은 초기에 비해 조금은 변했다.

Emo 뮤지션들은 emo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고 emo kids는 emo 밴드들을 좋아하고 emo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을 지칭한다. 이들 모두 emos라고 하는데, emos의 특징은 시를 좋아하고 직접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sup>11)</sup> Emos는 과거의 고스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곳을 좋아하며 emo 십대들은 낮에도 방에 커튼을 치고 빛을 피하고 어둠을 즐긴다고 한다.<sup>12)</sup> Emos가 찍은 사진을 emo pics라고 하는데, 한 신세대 용어 인터넷 사진 사이트에서는 emo pics의 특징들은 사진 속에서 그들은 항상 혼자이고, 우울한 분위기이고, 검정색 의복을 입고, 아이라이너를 착용했

고, 밑을 보거나 옆을 보며 울것 같은 표정을 하고, 때로는 후드티를 입고, 때로는 문신을 하고, 때로는 컨버스를 신은 자신의 발의 사진을 찍기도 하고, 보통 자신에게만 의미있는 글과 함께 제시된다고 한다.<sup>13)</sup>

Emo들은 스스로를 신세대 고스(goths: gothics를 요약한 것)와 유사하게 생각하며, 스타일과 분위기 또한 펑크나 고스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자해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십대들이 emo 웹사이트에 자신의 손목 상처에 대해 논하며 어떻게 가장 잘 돋보이게 하고 다닐지에 관해 의논한다고 한다.<sup>14)</sup> Emo들은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문화를 거부한다. 여성들 중에는 emo를 성적인 느낌이 약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sup>15)</sup> emo가 중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이미지에 가깝기 때문에 emo 남성들이 동성애자이거나 동생애자 같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

Emo 패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정"이다. Emo kids가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고 그들의 우울한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색상으로 해외 emo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의하면 emo 패션은 각이 있고 기름진 헤어스타일, 짙은 아이라이너,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매우 타이트한 옷, 더러운 의복 스타일이라 한다.<sup>16)</sup> 옷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마른 몸인데, 우울하고 슬프고 잘 못 먹고 굶주린듯한 이미지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2. Emo 문화의 근원: Punk

Emo 문화의 역사는 짧고 특히 청소년 하위문화로 부각된 것이 최근의 일이므로, emo의 근원이라 이야기되는 펑크 문화와 패션에 대한 고찰을 통해 emo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mo의 근원은 하드코어이고, 하드코어는 펑크 혁명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새로운 펑크 락이었다.<sup>17)</sup>

펑크의 기원은 히피와 락음악에서 찾을 수 있으며 펑크, 히피, 락 음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sup>18)</sup> 펑크는 영국 청년이 경험하고 있던 허무와 절망의 정서를 대변하였고, 펑크 문화가 영국 젊은이들에게 쉽고 강력하게 수용된 것은 200%를 초과하

는 실업률과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직업 없는 젊은이들이 좌절로 얼룩진 영국의 경제상황 때문이었다. 사회적으로 박탈된 젊은이들은 직업과 최소한의 특권이 없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sup>19)</sup> 하위문화들은 사회에 대한 반항과 거부라는 점에서 모두 유사성이 있지만, 펑크와 이전의 하위문화와 가장 큰 차이점은 펑크들은 자신이 소속된 청년 문화마저 공격하였고, 미래는 물론 과거도 부정하였다는 것이다.<sup>20)</sup>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는 펑크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밴드로, 1970년대 초반 태동된 펑크에 사회적 메시지와 정치적 메시지를 이입시켜 독특한 '영국 펑크'를 창조했다.<sup>21)</sup> 섹스 피스톨즈의 펑크 락은 음악의 반정부적인 가사로 인해 영국에서 방송금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Save the Queen(하나님 여왕을 구하소서)"라는 제목의 노래는 대 유행했고 이 문구가 적힌 티셔츠가 하나의 펑크 스타일로 등장했다.<sup>22)</sup> 섹스 피스톨즈가 펑크 패션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부풀리는 형태나 염색을 하였고, 진한 메이크업을 했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복장을 착용했고, 노래 가사의 일부나 티셔츠에 혐오스러운 문구가 프린트 되었으며, 액세서리는 체인이나 그 밖의 반사회적인 도구를 사용하였다.<sup>23)</sup>

이 외에 펑크 룩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얼굴을 창백하게 흰색으로 화장하는 것, 옷을 일부러 찢는 것(slash),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그림이 프린트된 티셔츠, 성글게 찢 모헤어 스웨터, 플라스틱이나 PVC, 고무 등의 값싼 소재로 만든 의복 등이었다. 펑크들은 또한 체인 외에 면도날, 안전핀, 와일드한 지퍼 등을 즐겨 착용하였다.<sup>24)</sup> 펑크 패션은 이런 의복 특징과 바디 페인팅 장식 등으로 시각적으로 백인 하위문화에게 성적인 면을 제공하였다.<sup>25)</sup>

이와 같은 펑크문화와 emo 문화의 유사성은 젊은 이들의 사회와 자신에 대한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정신 및 표현,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음악, 검정색과 반패션적인 의복 착용 등이며, 다른 점은 펑크의 청소년들은 태도가 강하고 이에 따라 의상에도 체인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스타일도

착용하고 헤어스타일도 과장되게 부풀렸지만, emo 청소년들은 사회와 현실에 대한 불만은 있어도 약하고 우울한 태도가 강하고 의상도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실루엣과 더러운 스타일을 착용하고 헤어스타일도 기름지고 힘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중성적이라는 점이다.

### Ⅲ. 한국과 미국 Emo 밴드의 패션 스타일 분석

한국과 미국 emo 밴드의 패션 스타일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각 나라의 emo 밴드를 4개씩 선정하였고, 선정된 밴드들의 공식적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복이 잘 나타난 사진을 대표적으로 총 37장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한국 emo밴드 선정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에서 "이모 밴드"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였을 때 제시되는 밴드들을 선정하였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인터넷 상에 밴드 홈페이지를 가진 emo 밴드는 총 4개 선정되었다. 선정된 한국 밴드들은 버미트랩(Vermi-Trap), 옐로우 푸퍼(Yellow Puffer), 로드(Road), 골드 러쉬(Gold Rush)였다. 미국 emo 밴드를 선정할 때는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밴드들을 추출하기 위해 세계적 음악 차트인 *Billboard Chart*에서 높은 순위를 갖거나 오랫동안 높은 순위권에 있었던 밴드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밴드들은 마이 케미컬 로맨스(My Chemical Romance), 패닉 앳 더 디스코(Panic! at the Disco), 테이킹 백 선데이(Taking Back Sunday), 그리고 폴 아웃 보이(Fall Out Boy)가 선정되었다. 마이 케미컬 로맨스는 2007년 3월 *Billboard Chart Top 10 Modern Rock*에서 "Famous Last Words"라는 곡으로 4위를 차지하였고, 패닉 앳 더 디스코는 2006년 6월 *Billboard Independent Chart*에서 "A Fever You Can't Sweat Out"라는 곡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테이킹 백 선데이는 데뷔 곡 "Where You Want to Be"가 *Billboard Chart Top 200*에서 3위로 데뷔하였고, 폴 아웃 보이는 2007년 3월에 "This Ain't a Scene, It's an Arms Race"로 6위를 차지하였다. 이

와 같이 선정된 4 밴드 모두 많은 앨범이 판매되고 음악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최근까지 차지하는 영향력 있는 밴드들이다. 패션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서 아이템, 형태, 색채, 디테일의 조형적 요소들을 고찰하였고, 각 나라의 emo 패션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펑크 패션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 1. Emo 뮤지션 패션 스타일 사진 분석

### 1) 한국 Emo 밴드 패션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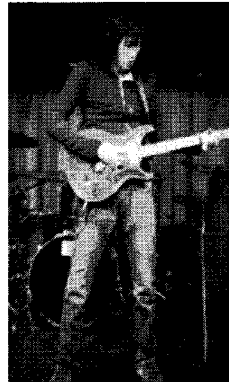
한국 밴드들은 밴드에 따라 착용하는 의복의 색이 조금씩 다르거나 티셔츠 혹은 남방 중 선택하는 아이템이 다른 등 다른 점들이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비슷했다. 4 밴드 모두 캐주얼하고 편안한하고 꾸밈이 많지 않은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버미트랩의 경우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안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보라색 후드티를 착용하고, 하의로는 낫은 스키니 진(skinnny jeans)를 착용하고 낫은 스니커즈(sneakers)로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의 편안한 스타일을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료 사진에서 아이템은 티셔츠, 스키니 진, 스니커즈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착용했지만, 액센트 컬러나 액세서리 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구체적으로는 검정색 빨레 안경과 징 박힌 검정색 벨트 액세서리, 타이트 티셔츠를 착용하여서 표현하는 매우 슬림한 형태, 워싱이 많이 된 청바지, 흰색이나 빨간색 프린트가 되어 있는 블랙 티셔츠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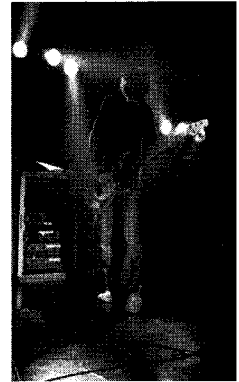
엘로우 푸퍼 밴드의 특징은 스키니 진과 슬림한 실루엣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림 2>와 같이 비교적 통이 넓은 청바지를 착용하고 적당히 타이트한 티셔츠로 약간 루스한 형태 착용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머리 한쪽을 매우 짧게 자르고 반대쪽은 약간 길게 얼굴을 가리도록 한 스타일링과 붉은색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링도 관찰되었다.

로드의 패션 스타일링은 버미트랩의 스타일링과 유사했지만 조금 더 깔끔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3>에서 로드 밴드 멤버들이 보라색 티셔츠, 빨간색 티셔츠, 검정색 티셔츠에 검정색 청바지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Emo를 포함한 모든 하위문

화의 대표적인 색인 블랙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단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비교적 다양한 비비드한 색상의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버미트랩 패션 스타일<sup>26)</sup>



<그림 2> 엘로우 푸퍼 패션 스타일<sup>27)</sup>



<그림 3> 로드 패션 스타일<sup>28)</sup>



<그림 4> 골드 러쉬 패션 스타일<sup>29)</sup>

로드 밴드는 이 외 사진에서 비비드한 색상의 모자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였고, 음악 장르가 감정적이고 약간 여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이나 수염 등 기타 연출은 하지 않고 얼굴은 깨끗하고 남자답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단, 머리를 염색하거나 헤어 스타일링으로 모양을 내었다. 티셔츠는 깔끔한 단색의 티셔츠나 그림 위주의 티셔츠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아이템만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emo 밴드 중 가장 포멀(formal)하게 차려입어서 공연을 한 밴드는 골드 러쉬였다. 골드 러쉬의 사진들은 대부분 <그림 4>와 같이 검정색 남방과 검정 스키니 진, 검정색에 은색 포인트가 있는 벨트와 빨간색이나 보라색 등의 색상으로 포인트가 되는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들이었다. 골드 러쉬의 밴드 메인 보컬도 빨테 안경을 착용했으며, 이 밴드의 특징은 남방과 넥타이를 착용했지만 구두는 신지 않고 다른 밴드들과 마찬가지로 스니커즈를 착용했다. 한국 emo 패션은 검정색을 많이 착용하고 벨트에 징 장식이 있다는 등의 면에서 emo의 근원인 핑크와 유사점이 있었지만, 젊은 타겟에게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착용한다는 면에서 반패션적인 핑크와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2) 미국 Emo 밴드 패션 스타일

미국 밴드들은 한국 밴드와 비슷하게 티셔츠 혹은 남방과 스키니진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밴드에 비해 형태가 전체적으로 더욱 슬림했으며 과거의 테디보이나 핑크를 결합한 듯한 스타일의 아이템들도 돋보였으며, 색상은 컬러풀한 단색보다 블랙 위주였고 안경과 긴 앞머리, 짙은 아이메이크업 또한 강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My Chemical Romance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타이트한 스키니진과 매우 슬림한 라인의 셔츠와 재킷 등으로 슬림한 형태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은 포멀한 재킷이나 가죽 재킷 등 스타일은 다양하게 착용했고 재킷의 흰색 파이핑이나 스키니 넥타이 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사진 속의 신발은 모두 검정색 구두를 착용하였고 바지는 모두

진한 검정색 청바지를 착용하였다. My Chemical Romance의 다른 사진들에서는 지퍼가 달린 검정색 가죽 재킷, 흰색 무늬가 포인트로 있는 검정 남방, 은색 버클의 검정색 벨트 등의 패션 스타일 특징을 고찰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밴드의 스타일은 매우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Panic! at the Disco는 티셔츠만을 고집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는 테디보이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러플 달린 셔츠와 핀 스트라이프 조끼와 재킷도 착용하여서 다른 밴드에 비해 포멀하지만 슬림한 형태와 짙은 아이메이크업 등으로 emo 패션 스타일 특성을 반영한 룩을 착용하였다(<그림 6>). 머리는 앞으로 길게 내려서 emo 룩의 감성을 강렬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Panic! at the Disco의 다른 사진으로 보아 이 밴드는 무대 위에서는 주로 셔츠, 재킷 구두 등의 아이템으로 포멀한 차림을 하지만 평소 투어를 할 때와 연습할 때 등은 다른 emo 밴드들과 비슷하게 티셔츠와 후드티, 스키니진, 징 박힌 벨트와 스니커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공연할 때는 검정색, 흰색, 회색의 무채색을 고집하지만 오프 스테이지에서는 빨강, 초록색, 파란색 등의 심플한 단색 아이템과 살짝 워싱되었지만 매우 스키니한 실루엣의 검정색 청바지를 착용하였다. 무대에서 착용하는 포멀한 느낌의 의상은 과거 하위문화인 테디보이와 핑크의 영향을 받은 듯한 스타일로 관찰되었다.

Taking Back Sunday는 Panic! at the Disco와 비슷하게 평소에는 캐주얼한 느낌의 검정색이나 단색 티셔츠를 착용했지만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할 때는 <그림 7>과 같이 흰색이나 검정색 남방을 착용하였다. Panic! at the Disco와 다른 점이 있다면 넥타이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착용할 경우는 매우 스키니한 무늬 없는 넥타이를 착용하였고, 조끼나 재킷은 착용하지 않고, 하의는 매우 타이트한 검정색 스키니진과 징 박힌 벨트나 깔끔한 검정색 가죽 벨트를 착용하여 느낌이 조금은 더 캐주얼하였다.

Fall Out Boy의 특징은 기하학적 문양과 심플한 그림이나 글씨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8>에서는 밴드 멤버가 검



〈그림 5〉 My Chemical Romance 패션 스타일<sup>30)</sup>



〈그림 6〉 Panic! at the Disco 패션 스타일<sup>31)</sup>



〈그림 7〉 Taking Back Sunday 패션 스타일<sup>32)</sup>



〈그림 8〉 Fall Out Boy 패션 스타일<sup>33)</sup>

정색과 빨간색 문양 포인트가 있는 티셔츠와 블랙 청바지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슬림하지만 빨간색 문양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앞머리는 의도적으로 염색하고 위로 뺨치도록 세웠다. Fall Out Boy의 다른 사진들에서는 갈색과 노란색 기하학적 물결 무늬가 프린트된 흰색 카라 티셔츠와 초록색 라운드넥 티셔츠 위에 흰색 무늬가 있는 검정색 브이넥 티셔츠를 착용하는 등, 다른 밴드들에 비해 디테일이 더 많은 스타일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밴드들과의 공통점은 슬림한 실루엣, 검정색 스키니진, 티셔츠 착용으로 나타나서 emo 밴드들의 아이템과 전체적인 색상 선택이 검정색과 흰색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고찰할 수 있었다. 미국 emo 패션은 검정색 의복의 착용, 짙은 아이 메이크업, 징 장식과 위로 뺨치는 헤어스타일 등, 한국 emo 패션보다 더 다양한 면에서 펑크 패션과 유사점이 있었고, 성적인 이미지가 아닌 마르고 강하지 않은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한국과 미국 emo 밴드의 패션 비교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 2. Emo 뮤지션 심층면접

한국에서의 emo 패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 emo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 5명을 대상으로 2007년 3월에 그룹 심층면접(FGI: Focused

Group Interview)을 실시했다. 심층면접 대상은 위에서 고찰한 한국 밴드 중 접근이 용이한 밴 'GR'의 멤버 5명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을 통해 이들의 emo 문화, 음악, 패션 등에 관한 사상과 스타일을 알아보고 이들의 사진을 찍어 평소 스타일과 공연 시 스타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 〈표 2〉와 같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생년이 1980년~1983년 사이로 젊은 뮤지션들이었다. 출신 지역은 부산, 서울, 성남, 울산 등으로 다양했지만 모두 어린 나이부터 음악을 시작하고 좋아해서 모이게 되어 하나의 밴드를 형성하였다.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가요와 팝 음악 등 대중적인 음악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락, 메탈, 펑크 등을 좋아해서 emo 음악 뮤지션까지 되었다고 하였다. Emo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감성주의 음악이라는 점에 동의를 하였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메탈에 비해 더 쉽게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멜로디와 리듬 위주의 음악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과 미국 emo 음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모두 감성주의 음악이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사상은 괴로움을 많이 표현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랑으로 인한 감정을 주로 표현한다고 하였고, GR의 경우는 사랑으로 인한 감정이지만 아

<표 1> 한국과 미국 emo 밴드의 패션 비교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 Emo 밴드 Fashion 유사점		구분	한국과 미국 Emo 밴드 Fashion 차이점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보라색 후드 티셔츠 -속에 흰색 티셔츠 -하늘색 스키니 진 -스니커즈 	-빨간색 후드 티셔츠 -속에 카키색 티셔츠 -검정 faded 스키니 진 	아이템	-그림 위주의 티셔츠 -구두를 착용하지 않음 -캐주얼한 아이템만 착용 	-리플 달린 셔츠 -핀 스트라이프 조끼와 재킷도 착용 -구두 착용 
-타이트 티셔츠와 스키니진으로 매우 슬림한 형태 	-타이트 남방과 스키니진으로 매우 슬림한 형태 		형태	-통이 비교적 넓은 청바지 -적당히 타이트한 티셔츠 -약간 루즈한 형태도 착용 
-블랙 남방 -블랙 스키니진 -블랙에 실버 포인트가 있는 벨트 -레드에 실버 포인트가 있는 넥타이 	-블랙에 레드 문양 프린트가 있는 티셔츠 -블랙 청바지 	색채		-보라색 티셔츠 -레드 티셔츠 -블랙 청바지 -단색과 조화를 이루어서 블랙과 함께 착용하기도 함 
-블랙 빨테 안경 -블랙 징 박힌 벨트 	-레드 빨테 안경 -블랙 벨트 		디테일	-모자 등으로 포인트를 줌 -아이 메이크업은 하지 않음 

름다운 감정보다는 집착, 분노, 시기 등 스토커의 감성에 가까운 감성을 노래한다고 하였다. GR가 표현하는 감정이 강해서인지 중학생 팬과 20대 중반 이후의 팬들은 있지만, 가장 자신들의 나이와 비슷하고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 20대 초반 팬들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Emo 패션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모두 바로 블랙이라는 색상으로 대답하였다. 면접 대상자 중 정장을 선호하는 사람, 티셔츠와 청바지를 선호하는 사람 등 선호하는 스타일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모두 검정색을 입는 것이 emo 패션의 기본이라고 동의하였다. 자신이 웃을 고



〈표 2〉 Emo 뮤지션 심층면접 결과

질문	뮤지션 1	뮤지션 2	뮤지션 3	뮤지션 4	뮤지션 5	
인적사항	생년	1982	1980	1982	1982	1983
	거주지	동교동	청량리	중계동	아현동	수서
	자란 곳	부산	서울	성남	울산	서울
	학력	고졸	고졸	고졸	고졸	중졸
음악	뮤지션 활동 시작한 나이	20세	19세	19세	19세	20세
	좋아한 음악 장르 변천사	LA 메탈-브릿팝-핑크	헤비메탈-블루스-핑크-모두	LA 메탈-블루스-핑크	가요-팝-락	락-전자음악
	Emo 정의	감성주의 음악	멜로디 리듬 위주 음악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가는 것	감성주의 음악	감성주의 음악
	미국과 한국의 emo의 차이점	감성이 다름 -미: 괴로움 -한: 사랑	한국에게는 emo가 아직 생소함	감성이 다름	미국은 rock에 익숙해서 emo가 대중적	감성이 다름
패션	Emo 패션 정의	정장, 스모키 화장	컨버스와 비대칭 헤어스타일	징박한 벨츠, 슬림 캐주얼	청바지와 티셔츠	블랙, 비대칭 헤어스타일
	옷 입을 때 신경 쓰는 것	블랙 위주로 통일성 있게 입음	블랙, 럭셔리하지 않게 입음	보드화, 리바이스 청바지, 스포티하게 입음	블랙, 또는 캐주얼하게 입음	간편하게 입음
	미국과 한국 emo 패션의 차이	폼매차이로 인해 달라 보임	미국은 짙은 메이크업	미국이 더 꾸밈	차이 많지 않음	한국이 더 간편하게 입음
	미국과 한국 emo 패션의 공통점	매우 비슷함	한국은 메이크업을 잘 안 함	비슷함	비슷함	비슷함
	본인의 음악 세계와 의복의 관련성	블랙으로 감정 표현을 함, 막막함 등	색으로 감정 표현	나의 모습 그대로 표현	블랙의 틀 안에서 변함	나와 비슷하게 편안하게 표현
	다른 스타일의 의복 착용 여부	무대 위와 비슷함	힙합 스타일도 입음	다양하게 입지만 가짜 명품은 싫어함	다양한 스타일 입음	루즈한 캐주얼도 입음

르거나 입을 때 신경 쓰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통일성 있게, 또는 청바지와 티셔츠로 편안하고 캐주얼하게 입는다고 답변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emo 뮤지션으로서 럭셔리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깔끔하고 길어 보이거나 편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이모 패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티셔츠와 청바지, 스니커즈, 혹은 블랙 정장을 착용하는 점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미국인은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연출되는 느낌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미국은 남성들이 매우 짙은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고 러플이 달린 셔츠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룩을 표현하기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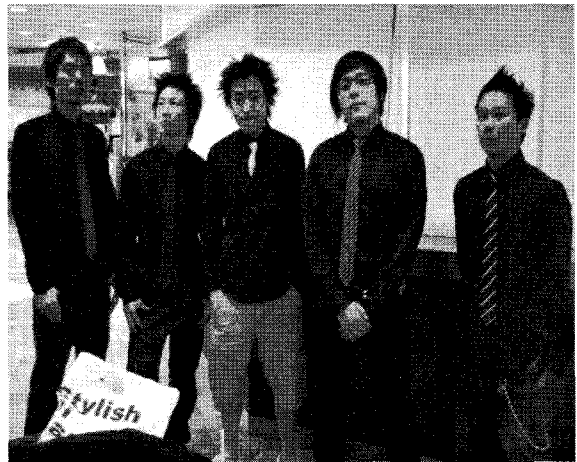
지만, 한국은 그에 비해 편안하게 입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emo 음악이 한국에서는 대중화 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음악이므로, 메이크업과 의상을 너무 특이하게 하면 팬을 많이 잃게 된다고 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은 한 밴드의 일원들로서 무대 위에서는 모두 주로 검정색 정장 셔츠와 넥타이에 검정색 스키니진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평소에는 힙합 스타일을 입는 사람도 있었고, 캐주얼한 차림을 입는 사람, 다양한 스타일을 모두 소화한다는 사람 등이 있었다. 무대 위에서 검정색을 착용하는 이유는 검정색을 통해 자신들의 노래의 막막함과 캄캄함 등 다양한 감정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소에 다른



<그림 9> GR 멤버 평소 의상



<그림 10> GR 멤버 평소 의상



<그림 11> GR 공연 의상

스타일도 입는 이유는 그냥 편안함 때문, 혹은 유행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심층면접을 GR가 공연을 하기 전에 실시하였다. 따라서 면접 대상자들의 평소 의복과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 갈아입은 의복을 모두 볼 수 있었다. 두 가지 모습 모두 사진을 찍었는데, 무대 위의 옷과 평소의 옷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통일되게 검정색 셔츠와 넥타이로 포인트를 주었다. 하의로는 대부분 슬림한 라인의 청바지를 입었지만, 예외적으로 한 명은 자신의 스타일 주장이 강한데 슬림한 라인을 선호하지 않아서 헐렁한 바지를 착용하였고, 한 명을 드러머여서 하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과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바지를 착용하였다. 디테일로는 바지에 체인이나 징박힌 벨트, 안경 등이 있었고, 머리를 많이 세워서 반항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평상시 의복은 무대에서의 모습과 비슷하게 착용하는 유형, 무대 위 모습과는 다른 헐렁한 스타일을 입는 유형이 있었다. <그림 10>의 첫 번째 유형은 평소 모습에서 넥타이를 착용하거나 걸옷만 벗으면 될 정도로 무대 위의 모습과 비슷한 옷을 입었다. <그림 11>의 두 번째 유형은 보통 20대 남성들과 같이 후드 티셔츠와 캐주얼 재킷, 청바지와 스니커즈를 착용

하였는데, 의도적으로 럭셔리하지 않은 편안한 느낌을 연출하였고, 검정색과 카키색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을 나타내었다.

#### IV. 한국과 미국 Emo Kids의 패션 스타일 분석

현재 emo의 영향을 받은 emo kids의 패션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emo kids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올린 미국 emo kids의 사진 12장과, 미국에 비해 스스로 emo kids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적은 한국 emo kids는 한국 emo 밴드의 팬으로서 밴드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고 실제로 밴드의 공연에 자주 함께 하고 자신의 사진을 밴드 카페에 올리는 사람들의 사진 10장을 고찰하였다. Emo 뮤지션 사진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 형태, 색채, 디테일의 조형적 요소들을 고찰하였고, 핑크 패션과 비교 고찰도 실시하였다.석

<그림 12>와 <그림 13>은 한국 emo kids의 사진들이다. <그림 12>에서는 emo kids 두 명이 주황색과 연구색이 각각 매치되는 야구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였고, 한 명은 빨테 안경을 착용하고 한 명은 백팩을 멘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에서는 한 명은 긴 앞머리를 의도적으로 기르려 보이도록 손질하여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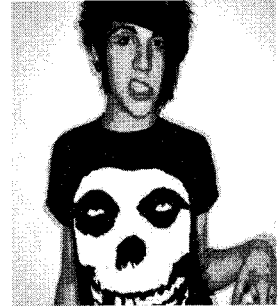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 emo kids<sup>34)</sup>



〈그림 13〉 한국 emo kids<sup>35)</sup>



〈그림 14〉 미국 emo kids<sup>36)</sup>



〈그림 15〉 미국 emo kid<sup>37)</sup>

으로 내렸고, 검정 티셔츠, 검정 후드티와 검정 바지를 착용하였다. 다른 한 명은 사람 얼굴이 프린트된 검정과 흰색의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착용하였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둘 다 얼핏 보면 일반 한국 대학생들과 같은 패션을 착용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 emo kids는 아직까지는 음악은 좋아해도 평소에 emo의 우울하고 폐쇄적인 정신을 표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머리 스타일의 연출, 빨테 안경, 검정색 의복 착용, 야구모자 착용 등의 특징들은 다른 한국 emo kids 사진에서 자주 등장하는 emo kids의 특징들이었고, 특히 남자 emo kids들이 매우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그림 14〉와 〈그림 15〉에서 보이는 미국 emo kids의 사진들은 한국 emo kids들의 사진과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그림 14〉의 조형적 요소들을 보면 한 명은 티셔츠, 한 명은 후드티를 착용하였고 색상은 카키색과 검정색이다. 디테일로는 그림이 아닌 붓터치와 같은 무늬와 기하학적인 무늬가 프린트되어 있다. 액세서리는 따로 착용하지 않았지만, 한 명은 얼은 색상의 부자연스러운 컬러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였고, 두 명 다 집에서 자른 듯한 앞머리가 길고 기하학적이 짧은 기장의 머리스타일을 하고 있다. 두 emo kids의 표정은 무표정이고 특별한 생각이 없는 듯한 무관심한 표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emo의 주요 가치 중 하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15〉에서는 표정이 있지만, 무엇인가에 불만이 있는 듯해 보이는 표정이다. 이런 기분을 반영하듯, 착용한 아이템은

검정색 해골 무늬가 프린트 된 티셔츠이다. 사진에서의 티셔츠가 완전히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여유분이 있어서 사람의 몸을 더 말라 보이게 한다. 〈그림 15〉의 emo kid의 머리 스타일은 〈그림 14〉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자른 듯한 기하학적인 컷트 스타일이고, 앞머리가 길다. 액세서리는 굵은 검정 귀걸이를 착용하였다. 미국 emo kids의 사진들은 모두 백인이었지만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검정색 머리를 가진 kids의 사진이었다. 자연적으로 검정색 머리를 가진 백인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emo kids는 emo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머리를 염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의 미국 emo kids 사진들에서 착용한 아이템들도 모두 티셔츠나 후드티와 스키니 진이었고, 색상은 주로 검정이었다. 액세서리로는 귀걸이 외에 십자가 목걸이, 수많은 얇은 팔찌, 코와 입술 피어싱 등이 있었고, 한국 emo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진 속 인물의 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웠고, 머리 스타일이 더 파격적이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emo kids의 패션 비교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 V. 결론

미국과 emo 문화와 음악은 미국의 오랜 rock, gothic, punk 역사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여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현재는 대중적인 하나의 음

〈표 3〉 한국과 미국 emo kids 패션 비교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 Emo Kids Fashion 유사점		구분	한국과 미국 Emo Kids Fashion 차이점	
한국	미국		한국	미국
-검정색 후드 티셔츠 -특별한 무늬 없음 	-검정색 후드 티셔츠 -적당히 타이트한 피트 -특별한 무늬 없음 	아이템	-여성이어도 노출을 하지 않고 후드 티셔츠 착용 -흰색 긴소매로 귀여운 이미지 	-끈 민소매 탑을 입은 여성 -노출이 심함 -레이스 장식 -섹시하기보다는 힘없는 이미지 
-적당히 타이트한 검정 티셔츠 -몸을 말린 형태로 보이게 하는 실루엣 	-적당히 타이트한 검정 티셔츠 -몸을 말린 형태로 보이게 하는 실루엣 		형태	-비교적 헐렁한 실루엣의 티셔츠, 후드 티셔츠, 점퍼 -활동하기 편안한 폭의 상의와 하의 
-형광 느낌의 오렌지 색, 연두색과 흰색이 조화된 티셔츠 -모자와 티셔츠 세트로 색채 맞춤 코디 -발랄한 느낌 	-형광 느낌의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등이 가미된 만화가 프린트된 흰색 티셔츠 -유아적인 느낌을 착용하였지만 착용자의 느낌은 무관심성 	색채		-흰색 모자 -초록색 가디건 -회색, 검정색, 흰색의 하트 문양이 있는 티셔츠 -여러 색을 함께 착용하기도 함 
-검정색 흰색 스트라이프 무늬 니트 -검정색 목도리 -편안한 실루엣 	-검정색과 흰색 스트라이프 무늬 티셔츠 -검정색 피어싱 -긴 앞머리, 검정색으로 염색된 머리 		디테일	-초록색 야구 모자 -흰색 심플한 만화 그림이 프린트된 검정색 티셔츠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악 장르가 되었지만, 한국 emo 음악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음악 장르로서 emo 밴드들이 많지 않고 아직은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emo 문화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로 인해 한국과 미국 emo 패션은 아이템과 색상의 비슷한 면들은 있지만 디테일과 실루엣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emo 밴드들의 복식을 고찰한 결과, 한국과 미국 emo 패션에서 모두 슬림한 실루엣, 스키니 진과 티셔츠, 스니커즈, 검정색, 징 박힌 벨트와 빨데 안경 등의 아이템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미국의 emo는 과거의 핑크와 테디보이 등 청소년 하위문화를 결합한 스타일 특성이 강했으며, 우울한 반사회적인 정서의 표출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emo 패션은 미국에 비해 덜 우울하고 순화된 감정 표출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였다. 나라 간의 대표적인 스타일 차이 중 하나는 눈 화장으로 미국은 남성들도 퇴폐적이고 건강하지 못함을 연상시키는 짙은 눈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선호되지 않았다.

한국 emo 뮤지션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미국은 괴로움과 의로움 등의 사상을 표현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랑으로 인한 어두운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emo 뮤지션들이 강한 표현을 하고 싶어도 팬들이 싫어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emo 뮤지션들의 무대 위 의상과 평소 의상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험렁하고 캐주얼한 일반적인 패션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과 미국 emo kids의 스타일 비교 분석결과, 한국 emo kids는 emo 음악은 즐겨도 평소에 emo의 우울하고 폐쇄적인 정신을 표현하지 않아서 일반 한국 대학생들과 패션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머리 스타일의 연출, 빨데 안경, 검정색 의복 착용, 야구모자 착용 등은 한국 emo kids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들이었다. 미국 emo kids는 emo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정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경우가 많았고 착용한 아이템들은 티셔츠나 후드 티셔츠와 스키니 진이었고, 색상 역시 주로 검정색이였다. 다른 디테일로는 십자가 목걸이, 수많은 얇은 팔찌, 코와 입술 피어싱 등이 있었고, 한국 emo kids 보다 사진 속 인물의 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졌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emo 패션은 각 나라의 emo 문화와 음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 emo 문화는 아직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일반 패션과 확연하게 다른 강한 특징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복식은 착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제한점은 미국 emo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언어적 근거 자료는 다양하게 고찰하였지만, 미국 emo 패션의 사진은 웹사이트 상 사진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Emo 음악이 한국에서 대중화되고 문화가 확장을 한다면 한국 emo 밴드들과 emo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미국 emo 패션과 같은 더 강하고 감성적인 패션을 택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한국 emo들은 일반 의류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의복을 구입하여 스타일링을 하는데 이들을 겨냥한 패션 업체들은 미래의 emo들의 감성과 스타일을 고려한 패션 스타일을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emo 문화와 패션은 하나의 젊은 층의 문화로 지속적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현대 젊은 세대 문화의 반영으로서 emo 패션에 관한 지속적인 깊은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외에 힙합 패션이나 트랜스 패션 등 다양한 현대 하위문화 패션들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Wikipedia, 자료검색일 2007. 2. 17,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Emo>
- 2) 김성환 (1998). 대중 음악 속의 철학. 대진대학교 대진논총, 6, pp. 61-62.
- 3) Incendiary Magazine. EMO: What Is It?, 자료검색일 2007. 2. 17, 자료출처 <http://www.incendiarymag.com/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43>
- 4) Wikipedia, 자료검색일 2007. 2. 17,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Emo>
- 5) Gurl Magazine. Label It:Emo, 자료검색일 2007. 2. 20, 자료출처 <http://www.guric.com/findout/label/pages/o..673303.00.html>
- 6) Leslie Simon, Trevor Kelley (2006). *Everybody Hurts: An Essential Guide to Emo Cultur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pp. 2-4.
- 7) About: Alternative Music. What is Emo Music? A Genre Profile, 자료검색일 2007. 3. 2, 자료출처 <http://altmusic.about.com/od/genresstyles/p/emo.htm>
- 8) Andy Greenwald (2003). *Nothing Feels Good: Punk, Rock, Teenagers and Emo*. New York: Martin's

- Press, p. 12.
- 9) Knot Magazine. In Defense of Emo, 자료검색일 2007. 2. 20, 자료출처 <http://www.knotmag.com/?article=885>
  - 10) About: Alternative Music. What is Emo Music? A Genre Profile, 자료검색일 2007. 3. 2, 자료출처 <http://altmusic.about.com/od/genresstyles/p/emo.htm>
  - 11) Knot Magazine. In Defense of Emo, 자료검색일 2007. 2. 20, 자료출처 <http://www.knotmag.com/?article=885>
  - 12) 자료검색일 2007. 2. 20, 자료출처 <http://www.knotmag.com/?article=885>
  - 13) Urban Dictionary, 자료검색일 2007. 2. 20, 자료출처: <http://www.urbandictionary.com>
  - 14) 자료검색일 2007. 2. 20, 자료출처 <http://www.urbandictionary.com>
  - 15) 자료검색일 2007. 2. 20, 자료출처 <http://www.urbandictionary.com>
  - 16) The Idiot Behind the Iron Mask, 자료검색일 2007. 3. 3, 자료출처 <http://www.wanzafran.com/>
  - 17) Andy Greenwald (2003). 앞의 책, p. 9.
  - 18) 송명건, 이송림 (2001). 히피와 펑크 패션 연구: 발생 당시의 히피, 펑크와 2001년 히피 펑크와의 비교 연구. 디자인 포럼, 21(4), p. 29.
  - 19) 위의 책, p. 30.
  - 20) 권해기, 성남숙 (2002). 하위문화 패션에 나타난 코디네이션 경향에 관한 연구. 전주전문대학논문집, 25, p. 14.
  - 21) 송명건, 이송림 (2001). 앞의 책, p. 29.
  - 22) 위의 책, p. 30.
  - 23) 위의 책, p. 30.
  - 24) 김경인, 이윤정 (1994). 히피, 펑크와 네오히피, 네오 펑크의 비교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8, p. 264.
  - 25) 권해기, 성남숙 (2002). 앞의 책, p. 16.
  - 26) 버미트랩 패션 스타일, 자료검색일 2007. 3. 1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vermitrap>
  - 27) 엘로우 푸퍼 패션 스타일, 자료검색일 2007. 3. 1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jamber>
  - 28) 로드 패션 스타일, 자료검색일 2007. 3. 1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soundmake>
  - 29) 골드 러쉬 패션 스타일, 자료검색일 2007. 3. 1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caster>
  - 30) My Chemical Romance 패션 스타일. 자료검색일 2007. 3. 10, 자료출처 <http://www.mychemicalromance.com>
  - 31) Panic! at the Disco 패션 스타일, 자료검색일 2007. 3. 15, 자료출처 <http://www.panicatthedisco.com>
  - 32) Taking Back Sunday 패션 스타일, 자료검색일 2007. 3. 15, 자료출처 <http://www.takingbacksunday.com>
  - 33) Fall Out Boy 패션 스타일, 자료검색일 2007. 3. 15, 자료출처 <http://www6.falloutboyrock.com>
  - 34) 한국 emo kids, 자료검색일 2007. 3. 1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caster>
  - 35) 한국 emo kids, 자료검색일 2007. 3. 1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jamber>
  - 36) 미국 emo kids, 자료검색일 2007. 2. 25, 자료출처 <http://worldn/media/daum/net>
  - 37) 미국 emo kid, 자료검색일 2007. 2. 25, 자료출처 <http://worldn/media/daum/net>